승려·문인 귀한 차 주고받으며 교류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㉓ 고려시대 차 선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은제 주자와 승반. 보스턴박물관 소장

차는 세미(世味)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나누는 고상하고도 귀한 선물이었다. 이는 바로 사람의 번뇌와 망상, 병을 떨쳐내는 정신 음료였던 차의 맑고 담박한 세계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에도 차는 마음을 담은 선물로, 차를 통해 늦가을 청량한 공기처럼 경쾌한 경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대각국사(大覺國師 1055~1101)도 차를 보낸 이에게 마음을 담은 시를 지어 그 고마움을 드러냈으니 〈화인사차(和人謝茶)〉가 그것이다. 그는 선가의 차가 어떤 진미를 담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노래했다.

이슬 내린 봄 동산에서 무얼 할까나
(露苑春峰底事求)
달빛 머문 물 길어다가 차 달여 세상 근심 씻으리(煮花烹月洗塵愁)
몸 가뿐하여 삼통에 노니는 것보다 낫고
(身輕不後遊三通)
뼛골이 상쾌하여 갑자기 가을로 들어 온 듯하여라(骨爽俄驚入九秋)
선차(仙茶)라서 산사에 더 어울리고
(仙更更宜鐘梵上)
맑은 차향은 술과 시만 허락하네
(淸香偏許酒詩流)
단약을 먹고 오래 산 이가 누구던가
(靈丹誰見長生驗)
그 연유를 불문에 묻지 마오
(休向嵓臺問事由)

윗글은 〈대각국사문집〉 권18에 수록된 다시(茶詩)이다. 수행승의 초탈한 풍모를 "이슬 내린 봄 동산에서 무얼 할까나(露苑春峰底事求)/ 달빛 머문 물 길어 차 달여 세상 근심 씻으리(煮花烹月洗塵愁)"라고 노래했다. '팽월(烹月)'이란 우물물에 비친 달빛을 떠다가 차를 다린다는 뜻일 터다. 이규보(李奎報1168~1241)는 우물에 비친 달빛이 하도 아름다워 병 속에 담고자 했던 승려의 이야기를 '우물 속에 달을 읊다(詠井中月)'에서 다음과 같이 읊은 바 있다.

산승이 달빛을 탐하여
(山僧貪月光)
병 속에 물과 함께 길어 담았지
(甁汲一壺中)
절에 다다르면 바야흐로 깨달으리라
(到寺方應覺)
병 기울이면 달빛 또한 텅 비었다는 것을
(甁傾月亦空)

윗글은 산에서 수행하는 어느 스님이 샘물에 비친 달빛이 하도 아름다워 병에 가득 담아 왔지만, 막상 절에 이르러 달빛을 쏟아보니 휘황한 달빛은 사라지고 물만 남았다는 것이다. 공과 색의 현현을 노래한 것이니 불교를 깊은 이해한 그의 진면목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12세기 임춘(林椿 1148~1186)도 겸 스님에게 차를 보내면서 시를 지었다. 바로 '겸 스님에게 차를 부치다(寄茶餉謙上人)'가 그것이다. 귀한 차를 도력이 깊은 수행자에게 보내는 것이 당시의 미덕이었던 듯하다.

근래 몽산차 한 줌을 얻었는데
(近得蒙山一掬春)
백니에 붉은 도장 찍힌 차는 색. 향이 싱그럽구려
(白泥赤印色香新)
증심당 노인은 명품 차를 아시기에
(澄心堂老知名品)
더욱더 진귀한 자순차를 보내다오
(寄與尤奇紫筍珍)

윗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와 겸 스님은 서로 뜻을 나누는 사이였던지 이 시뿐만 아니라 겸 스님에게 보낸 시 두어 편이 더 눈에 띈다. 더구나 그가 겸 스님을 어떤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희서겸상인방장(戱書謙上人方丈)'에서 드러난다. 이 시에 "겸공은 총림에서도 으뜸이라(謙公俊逸叢林秀)"라고 평하였고, 이어 겸 스님의 수행경지를 "공(空)이니 유(有)이니 말하지 않지만(不復談空還說有)/ 미친 늙은이 방거사가(自知龐蘊一狂叟)/ 왕왕 참선하러 와서 머리를 조아리(往往參禪來稽首)"라 하였다. 이런 그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겸 스님은 방장으로, 수행이 깊고 높은 노장(老丈)이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그는 겸 스님에게 송나라에서도 명차로 알려진 몽정산에서 생산되는 몽정차를 보냈으리라.

고급차, 고상하고 귀한선물
맑고 담박한 정신의 차문화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의미
이규보 등 문인들과 차교류
스님과 주고받은 편지 남아

몽정차는 황실용 어원에서 생산하는 당대(當代)의 명차로, 송대에 몽정산에서 나는 차의 우수성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특히 이곳에 황실용 어원(御苑)을 만들면서 가장 진귀한 차로 등극하였다. 그러니 몽정차의 포장도 백니에 붉은 도장이 찍어 귀한 차임을 나타낸 것이다. 싱그러운 맛과 향기, 색을 어떤 차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몽정차를 증심당 주인 겸 스님도 차 맛을 잘 아는 수행자였기에 보낸 것이다.

더구나 자순차(紫筍茶)를 보냈다고 하였다. 자순은 붉은 차 싹을 말한다. 그래서 자순차라 부른 것이다. 일찍이 육우가 안사의 난을 피해 호주에 갔을 때 자순차의 우수성을 인정한 후 세상에 알려지게 된 명차(名茶) 중의 명차다. 이후 자순차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의미하는 상징어가 되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다인(茶人) 이규보(李奎報 1168~1241)도 일암거사 정분이 차를 보낸 것에 감사를 표하는 시를 남겼다. 바로 '사일망거사정군분기차(謝逸庵居士鄭君奮寄茶)' 2수가 그것이다. 그가 '정군분(鄭君奮)'이라 한 것으로 보아 정분은 그보다 벼슬이 낮거나 아니면 후학일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그가 정분이 보낸 차를 이렇게 노래했는데, 당시 차를 어떻게 포장하여 유통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운 소식 몇 천리를 날아왔는고
(芳信飛來路幾千)
하얀 종이 바른 함 붉은 실로 묶었네
(粉牋糊櫃絳絲纏)
내 늙어 잠 많은 줄 알고서
(知予老境偏多睡)
화전에 새로 딴 차를 구해 주었구려
(乞與新芽摘火前)

벼슬 높아도 검박하기 더없는 나인데
(官峻居卑莫我過)
여느 것도 없거든 하물며 선다이랴
(本無凡餉況仙茶)
해마다 홀로 인인의 덕을 입으니
(年年獨荷仁人貺)
이제야 이 세상 재상 집 구실 하네
(始作人間宰相家)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정분이 보낸 차의 포장법은 하얀 종이를 바른 함을 붉은 실로 묶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분과 이규보의 사이는 수 천리나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귀한 차를 보냈던 것이니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을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그가 보낸 차는 화전(火前)에 여린 싹을 따서 만든 극품의 차였다. 화전이란 한식(寒食) 전을 말하므로 대략 4월 5일 이전에 차를 따서 만들었던 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규보가 "벼슬 높아도 검박하기 더없는 나인데(官峻居卑莫我過)/ 여느 것도 없거든 하물며 선다이랴(本無凡餉況仙茶)"라고 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이규보가 최씨 정권 시절, 문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시기에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분이 그에게 여러 해 동안 차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 시의 중간에 "지난해에도 보내 주었다"라고 한 대목에서 드러난다.

앞에서 열거한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를 주고받는 교유의 미덕은 고려 시대 차 문화에 드러난 아름다움이다. 차를 주고받는 일은 문인과 문인 사이에, 혹은 승려가 문인 사이에서 차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는데, 특히 왕이 공이 있는 신하에게 내렸던 차는 통치의 수단으로 왕이 신하에게 보내는 신임의 증표였다.

고려 후기에도 차를 선물하던 풍습은 이어졌고 때로는 문인이 승려에게 차를 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정포(鄭誧,1309~1345)가 승원의 승려에게 차를 구하는 시가 그런 경우다. 그런데 그는 고려 후기 혼란했던 나라를 바로 잡고자 상소를 올렸지만, 파면을 당하는 고초를 겪는 등 벼슬길이 그리 순탄치 않았다. 특히 원나라로 망명하고자 한다는 참소로 인해 울주(蔚州)로 유배를 당했지만 오히려 활달한 장부의 기질로, 호연한 기상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3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그를 이색(李穡)은 〈설곡시고서(雪谷詩藁序)〉에서 "맑아도 고고(苦孤)하지 않고, 화려해도 음탕하지 않아, 사기(辭氣)가 우아하고 심원하여 결코 저속한 글자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그의 시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가 차를 구했던 승려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지만, 그의 결명시(乞茗詩)는 이렇게 이어진다.

봄바람 꽃 같은 소년들
(春風年少貌如花)
다투어 황금을 술집으로 보내네
(爭把黃金送酒家)
우습다. 서생은 아무런 재주 없어
(自笑書生無伎倆)
아는 거라곤 스님에게 차를 얻는 일
(祇知僧院索芽茶)

봄바람 같은 나이는 몇 살을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18세를 전후한 소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도 앞을 다투어 술집을 드나들었다고 하니 고려 후기 어수선한 시대상을 그리고 있는 듯하다. 이런 시절 재주 없는 지식인이 구했던 건 차였다. 그것도 수행승에게. 당시 차 문화 전반을 주도했던 승려들은 그런대로 풍요롭게 차를 즐긴 계층이었음을 그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